



뜨거운 태양 아스팔트 위 '스키 질주'

13일 강원도 평창군 옛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구간의 도로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기원 제17회 회장배 전국 롤러 스키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이 작열하는 태양 아래서 아스팔트 위를 질주하고 있다. 이날 대회는 중·고등부, 대학부, 일반부로 나눠 5~20km 구간에서 열렸다. /연합뉴스

'이~ 송구'면 2루도루 어렵없지



호랑이 미래의 안방마님 이 흥구

KIA의 신인 포수 이흥구는 최근 선수단 사이에서 '이송구'로 불린다.

2루 베이스를 향한 강렬한 송구 덕에 얻은 기분 좋은 애칭이다. 힘겨웠던 지난 주 이흥구의 특급 송구는 2승의 중요한 씨앗이 됐다.

이흥구가 잡아낸 상대는 다름 아닌 도루 1위의 NC 투타자 김중호 그리고 삼성의 투타자 배영섭이었다.

지난 9일 NC와 1-1로 맞선 3회말 선두타자 김중호가 안타로 출루했다. 도루 1위 질주 중인 김중호는 이내 2루를 파고들었지만 이흥구의 송구에 막혔다. KIA 선발이었던 서재응은 이후 모창민·나성범을 3루수 팽볼과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호투를 이어갔고 경기는 5-2, KIA의 승으로 끝났다.

삼성전 연패를 끊어낸 11일에도 인상적인 도루 저지가 있었다. 이날 삼진에 이어 병살타를 기록하며 고개를 숙였던 이흥구는 5-5로 팽팽히 맞선 7회 결정적인 도루 저지로 타석에서의 부진을 만회했다.

배영섭의 안타로 1사1루, 풀카운트 승부에서 박한이가 스탠딩 삼진을 당하면서 투 아웃, 스타트를 끊었던 주자 배영섭도 공보다 늦게 베이스에 도착하면서 이닝이 종료됐다. 분위기를 끌어온 KIA는 8회 나온 삼성 포수 진갑용의 패스트볼과 함께 6-5의 승리를 거뒀다.

답답한 여름을 보내고 있는 KIA에게 이흥구는 시원한 바람이다.

KIA의 약점 중 하나는 도루저지였다. 상대 주자에게 쉽게 2루 베이스를 내주면서 실점 확률도 그만큼 높아졌다. 또 포수는 유난히 경쟁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답보 상태에 머물던 포지션이기도 했다.

이흥구는 선배들의 부상과 신진 포수 육성이라는 조건이 맞물리면서 기회를 얻었다. 그리고 눈에 띄는 성장세로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단국대를 졸업한 이흥구는 2라운드 지명을 받아 KIA 유니폼을 입은 신인 선수. 타격의 정교함 보다는 파워, 강한 어깨로 주목받은 유망주였지만 출발이 순탄치는 않았다. 마무리 캠프에서 손바닥 골절 부상을 당하며 수술로 프로 생활을 시작했다. 결국 생애 첫 스프링캠프의 꿈도 무산됐다.

이흥구는 "예전부터 실금이 가 있었던 것을 몰랐었다. 스프링캠프는 물론 마무리캠프도 끝내지 못

파워·강한 어깨 주목받는 새내기

김상훈 부상에 1군 무대 호출

눈에 띄는 성장세로 KIA에 새바람

상대팀 '대도' 무조건 잡는다

빨래줄 송구 덕에 '이송구' 애칭

지난 8일 NC전서 생애 첫 홈런도

했던 만큼 속이 많이 상했었다"고 말했다.

겨우내 재활 과정을 보낸 이흥구에 생각보다 빨리 기회가 왔다. 5월31일 안방마님 김상훈이 우측 장딴지 파열로 엔트리가 말소되면서 이흥구가 1군 무대를 밟게 됐다. 두 차례 1·2군을 오갔던 이흥구는 지난달 30일 세 번째 호출을 받았고 본격적인 실력발휘에 나섰다.

이흥구는 "대학 때 받았던 공들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웃으며 "처음에는 여유가 없었는데 이제는 전체적인 모습이 보인다. 긴장하지 않고 경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이스로 걸어나가는 경우보다 방향이만 휘두르다가 머쓱하게 돌아서는 경우가 많지만 8일 NC와의 원정경기에서 찰리의 공을 밀어 생애 첫 홈런을 기록하기도 했다.

또 "타격은 많이 부족하다. 연습을 더 할 것이라는 후회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코치님들도 타격보다는 수비에 우선 집중하라고 하시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특히 도루 저지에 신경쓰고 있다.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다"며 "시즌 마지막까지 1군에서 버티는 게 목표다. 부상 없이 많이 배우고 성장하면서 시즌을 보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여자 탄환' 프레이저 100m 10초 71 우승

세계 육상선수권대회

자메이카의 '여자 탄환' 셸리 앤 프레이저 프라이스(27)가 제14회 모스크바 세계 육상선수권대회에서 여자 100m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프레이저 프라이스는 13일(한국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루즈니키 스타디움에서 열린 여자 100m 결승에서 시즌 최고 기록인 10초71 만에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유리엘 아후레(코트디부아르)가 10초93으로 뒤를 이었고 카멜리아 지터(미국)는 10초94로 동메달을 차지했다. 프레이저 프라이스는 출발 총성이 울린 지 0.174초 만에 스타팅 블록을 박차고 나가 다소 늦게 레이스를 시작했지만 폭발적인 가속도를 앞세워 경기 중반부터 단독 선두로 치고 나서 격차를 벌렸다. 2009년 베를린 세계 선수권대회에

서도 정상에 오른 프레이저 프라이스는 이로써 미국의 매리언 존스(1997·1999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세계 육상선수권대회 여자 100m에서 두 차례 정상에 오른 선수가 됐다. 10초71은 역대 11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며,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나온 기록 중에서는 두 번째로 좋다. 매리언 존스가 1999년 세운 최고 기록(10초70)과 100분의 1초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연합뉴스

한국육상 간판 광주시청 박태경 부상 회복

전국 대회서 110m허들 13초 96 금메달

한국 육상 간판스타인 박태경(33·광주시청)이 부상에서 회복해 새로운 기록도전에 나선다. 박태경은 지난 9일 강원도 태백에서 열린 '제25회 전국 실업단 대항 육상경기대회' 110m 허들에서 13초 96 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날 박태경의 기록은 자신이 지난 2010년 11월 중국 광저우에서 열린 제16회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며 세웠던 한국 신기록(13

초48)에는 못 미쳤다. 하지만 이날 경기를 통해 박태경이 부상에서 회복한 것으로 보여 향후 기록향상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태경은 오는 10월 인천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에서 27번째 금메달에 도전한다.

광주시 육상경기연맹 심재용 전무(광주시청 육상팀 감독)는 "박태경은 올해 첫 출전한 대회에서 3위를 차지했으나 이번에 1위에 올랐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부상에서 회복해 자



신의 기량을 되찾으며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야구대회 대진추첨

각 리그별 대표자들이 추첨을 하고 있다.

제3회 무등기 광주·전남사회인야구대회 대진추첨

추첨이 13일 광주일보사 1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